

#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분석

최지원\*, 홍상욱\*\*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영남대학교 교수\*\*

## An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Ji-Won Choi\*, Sang-uk Hong\*\*

Department of Family Residence at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현행 학교폭력의 대응방안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원인, 피해유형의 변화 가운데 사이버 폭력의 비중 증가에 따른 예방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코로나 19 이후 교육환경 변화로 인한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와 특징의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인지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에 관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성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교육부 2021 1차 학교폭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심리. 정서 결손 해소의 방안과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교사의 책임강화와 효율적인 대처능력의 향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학교폭력, 교육부 실태조사, 폭력유형, 사이버폭력증가, 대처방안

**Abstract** In this study, As youth school violence is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his study needs to actively respond to school violence to prevent and reduce the proportion of secondary cyber violence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school violence. By recognizing problem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c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fter COVID-19, we intend to find the right direction for schools, families, and communities to cope with school violence.

The analysis data is a psycholog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nge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aused by COVID-19 through the first survey of school violence in 2021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meaningful to suggest directions and alternativ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solve school violence problems by strengthening teachers' responsibility and improving their ability to cope efficiently.

**Key Words** School Violence, Surve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ypes of Violence, Increasing Cyber Violence and Countermeasures

Received 21 Jun 2022, Revised 11 Jul 2022

Accepted 25 Jul 2022

Corresponding Author: Sang-uk Hong  
(Yeungnam University)

Email: sanguk@yumail.ac.kr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적, 생리적 발달 외에 정신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성숙 등 많은 다양한 변화와 발달이 일어나며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아를 확립해나간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겪는 동안, 특성상 이성과 논리에 의한 판단보다는 감정과 충동에 의해 자신과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고 대처한다. 이러한 시기에 주위와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못하면 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여러 문제행동을 표출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핵가족화, 맞벌이부부의 증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중매체 등으로 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탈선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폭력 행위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폭력적 환경에 노출된 학생은 폭력적 행동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폭력을 자신이 직면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간주하며 처음에는 문제행동을 하기 어렵지만 일단 문제행동을 경험해본 청소년은 누구든지 그 문제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점점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진다. 특히 학교폭력의 양상은 성인범죄를 모방하고 점점 흉포화, 교묘화 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며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성인 범죄 수준으로 심각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은 집단가해 현상이 두드러지고, 피해청소년의 상당수가 가해 청소년이 되기도 하는 특성으로 악순환의 지속성이 나타난다. 또한 사이버 폭력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학교폭력의 문제는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및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통합된 복합적 사회문제로서 각 부분에 다각적인 분석으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1] 하지만 이제까지 그랬듯이 적극적인 대처 없이 둔다면 머지않아 학교는 배움의 터이기 보다는 각종 범죄의 근원지가 되며 점점 학교폭력행위가 만연해지고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학교폭력은 현대사회의 학교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 단어가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실태와 특징과 대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학교폭력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대처방안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유

형과 심각성을 알아보고 대처방안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성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활동이 증가하였다. 분야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가 40.9%, 학교폭력 예방, 지도 대책에 관한 연구가 33.1%, 학교폭력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가 20.6%이었다[2]. 즉,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 지도, 대책에 관련된 분야는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학교폭력의 원인과 영향에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함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가정과 학교, 사회는 나름의 관심을 나타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주체들 간에 있어 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의 선행연구 결과는 첫째,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한 장소는 학교주변과 학교 안 이었으며 폭력유형에 따라 주된 폭력의 발생장소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학교폭력은 대부분 우발적 폭행과 이욕(유혹비, 용돈 마련 등) 그리고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셋째, 학교폭력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는 남학생과 중학생이었다. 넷째, 학교폭력은 교내.외에 따라 초, 중, 고등학생의 피해 및 가해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당한 주된 폭력유형은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언어, 심리적 폭력이었다. 초등학생에게는 특히 언어, 심리적 폭력이 많이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생에게서는 신체적 폭력과 금품갈취가 높게 나왔다. 여섯째,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1].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보다는 즉흥적이고 전시적이며 주체별로 개별적인 대응으로 아직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최근의 학생 대상 폭력은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하고 복합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3].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19년 1.6%에서 '21년 1.1%로 감소, 언어폭력 비중은 '19년 35.6%에서 '21년 41.7%로 증가, 사이버폭력 비중은

'19년 8.6%에서 '21년 9.8%로 증가, 학교 밖 폭력은 '19년 24.3%에서 '21년 40.6%로 증가하였다[4].

## 2. 이론적 배경

### 2.1 학교폭력의 특성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소수의 문제 학생에 의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과거의 학교 폭력의 주요 유형은 폭력 서클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폭력이 주류를 이루었고 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폭력이 많았고, 1회성 단기적 성격을 띤 경우가 많았다.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졌고 주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지만 최근의 학교 폭력의 유형은 일부 학생에게만 국한된 이 아니라 상당 수 혹은 소그룹이 따돌림 등 집단으로 행하는 형태로 변화하며, 강제적인 심부름(빵서름, 와이파이가 서름 등), 협박, 집단 따돌림, 놀림 등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계속적,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다. 주로 중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초등학생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또래관계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가해학생이나 집단에 동조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일반폭력과 학교폭력의 차이점은 일반폭력은 모르는 사람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 학급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기간 가해자, 피해자가 마주치게 되며 일반 폭력은 폭력의 당사자 외에는 제3자가 알기 어려우나, 학교폭력은 당사자 외에도 같은 학교, 학급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지게 되므로 추가적인 정서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폭력은 연속성이 없으나,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끊임없이 특정 학생에 대해 행해지고, 문제의식 없이 학생들 사이에 학교 내 하나의 잘못된 문화처럼 형성될 수 있다. 학교폭력의 79%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며 약21%가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도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학교폭력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한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 이러한 특성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일회적인 피해가 아닌 더 큰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단 괴롭힘 가해 이유를 물어보면 ① 잘난 척 해서(29.4%), ② 친구가 하나까 따라서(11.7%), ③ 아무 이유 없이(11.7%), ④ 냄새나거나 더러워서(10.6%), 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어서(7.0%), ⑥ 똥똥하거나 못생긴 외모 때문에(6.5%) 등이다[5].

### 2.2 학교폭력의 대표적 유형

#### 2.2.1 신체폭력

신체폭력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 유형 중의 하나이며, 폭력 대상이 된 학생 1인 또는 1인 이상의 상대로 하여금 물리적 가해를 당하고,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도 상대방이 폭력 행위로 인식한다면 폭력에 해당하며 장난을 가장한 놀이형태(기절놀이 등)가 있으며, 더욱 흉폭해져 상해의 정도가 장애,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체폭력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인지 및 처벌이 용이한 반면에 쉽게 용인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측면의 인지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 2.2.2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언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공포심,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며, 학교 내·외에서 선후배나 동료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놀림이나 조롱, 심한 욕설, 비난, 헐뜯기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언어폭력은 신체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나 감정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욕설,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겁주기, 위협, 협박, 별명 부르기,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삼아 놀리기 등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악성댓글과 사이버 폭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언어적 폭력은 대상자의 정서나 감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장 보편적

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6].

### 2.2.3 따돌림

따돌림은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따돌림의 유형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것이 괴롭힘이다. 괴롭힘이란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과 구분되며, 욕설이나 신체적인 폭력 등도 괴롭힘의 한 형태이며, 괴롭힘에는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빈정거리기, 편袒주기, 놀리기,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하기 등이 있다.

### 2.2.4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학생들이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상의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한 비방과 욕설,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와 사생활 유출 등의 행위로 특정 대상에게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한다. 사이버 폭력은 신종폭력으로 빠른 증가세와 함께 학교폭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또한 익명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죄책감이 낮아져, 폭력이 일종의 놀이화 되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폭력은 직접적 대면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기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고, 사이버 세계에서는 현실과 달리 감시망이 부재함으로 사이버 폭력이 쉽게 이루어지며, 기존의 폭력에서 ‘가해자’ 범주에 속하던 사람도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폭력은 불안과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와 더불어 대인관계 기피, 자살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7].

## 3.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와 특징

### 3.1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별 실태변화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등의 순이며, 즉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

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피해유형별 응답률 (다중응답) (%)

구분*	2013년 1차	2014년 1차	2015년 1차	2016년 1차	2017년 1차	2018년 1차	2019년 1차	2020년	2021년 1차	증감(%)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33.5	41.7	8.2
집단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26.0	14.5	△ 11.5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6.7	6.2	△ 0.5
신체폭력(%)	11.7	11.5	11.9	12.1	11.7	10.0	8.6	7.9	12.4	4.5
사이버폭력(%)	9.1	9.3	9.2	9.1	9.8	10.8	8.9	12.3	9.8	△ 2.5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5.4	5.8	0.4
성폭력(%)	3.3	3.8	4.2	4.5	5.1	5.2	3.9	3.7	4.1	0.4
강요(%)	6.1	4.7	4.2	4.3	4.0	3.9	4.9	4.4	5.4	1.0

자료: 교육부2021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3.2 최근 학교폭력의 실태조사

분석 자료는 교육부 학교폭력의 실태 조사는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이다. 기간 및 방법은 '21. 10. 1.(금) ~ 31.(일),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로 시행되었고 대상은 초4 ~ 고2 재학생 중 표본 4% 약 14만명(대상 학생 15만명, 참여율 87.7%)이다. 내용은 '21년 1학기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적·피해·가해 경험 등이다.

#### < '21년 2차 표본조사 개선사항 >

(사이버 폭력 관련 문항 추가) 사이버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변화하는 폭력 양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유형' 및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에 대한 조사 추가

#### 3.2.1 피해유형 변화

피해유형 변화는 언어폭력 '19년 39.9% 에서 '21년 42.6% 로 증가, 신체폭력 '19년 7.7% 에서 '21년 13.6% 로 증가, '사이버폭력' 19년 8.2%에서 '21년 10.8% 로 증

가, 금품갈취 '19년 4.5% 에서 '21년 6.6% 로 증가, 집단따돌림 '19년 19.5% 에서 '21년 11.5% 로 감소, 성추행·성폭행 '19년 5.7%에서 '21년 3.7%로 감소, 스토킹 '19년 10.6%에서 '21년 5.0% 로 감소로 나타났다.

### 3.2.2 피해유형(학교급)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42.6%)과 신체폭력(13.6%)이 1, 2순위를 차지하고, 중학교는 사이버폭력(13.3%)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초11.8% 고10.7%)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피해유형	언어폭력	강요	금품갈취	신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스토킹	집단따돌림
전체(%)	42.6	6.2	6.6	13.6	3.7	10.8	5.0	11.5
초	43.7	6.2	6.5	13.1	2.8	10.0	5.8	11.8
중	39.1	6.4	6.2	14.8	5.9	13.3	3.3	10.9
고	42.6	5.2	9.7	15.2	5.1	8.7	2.8	10.7

자료: 교육부2021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3.2.3 사이버폭력 유형

‘사이버 언어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 (17.1%), ‘사이버 따돌림’(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교급별 사이버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피해유형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사이버개인정보유출	사이버따돌림	사이버강요	사이버갈취
전체(%)	42.7	17.1	5.8	3.6	7.6	12.6	7.0	3.6
초	43.9	16.5	5.8	3.6	6.1	13.3	6.6	4.3
중	40.8	16.5	6.1	3.4	9.4	12.1	8.9	2.8
고	41.3	28.5	3.5	5.0	14.3	7.4	0.0	0.0

자료: 교육부2021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버폭력 발생공간은 기타를 제외하고, 인스턴트 메신저\*(46.0%), SNS\*\*(26.7%), 온라인 게임(15.4%), 1인 미디어 채널(3.3%) 등의 순이며 인스턴스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카카오톡스토리 등도 있다.

## 3.3 최근 학교 폭력의 특징

### 3.3.1 여전히 심각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2021)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42.6%, 신체폭력이 13.6%, 집단따돌림 11.5%, 순이며 집단따돌림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심각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3.3.2 사이버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의 대폭적인 증가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 중 사이버공간내에서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표 3>에서 나타나듯이 42.7%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증가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버 폭력에 참여하는 이유는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복수심, 고통을 주는 쾌감, 권력에 대한 욕구 등으로 피해자와 정면 대립하지 않으면서 괴롭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8].

### 3.3.3 학교폭력 목격자의 무력하고 방관적인 태도

〈표 4〉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 (다중응답, 건수기준) (%)

구분	전체	초	중	고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	19.5	20.7	17.9	13.4
가족,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	16.2	16.8	14.5	15.1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33.4	34.0	30.8	36.2
나도 같이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	1.0	0.9	1.4	0.9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29.9	27.6	35.4	34.4

자료: 교육부2021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 5〉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행동(다중응답, 건수기준) (%)

구분	전체	초	중	고
학교선생님이나 신고함에 알리겠다	43.8	41.8	44.9	44.6
117신고센터·경찰관에게 알리겠다	24.6	23.6	25.0	25.3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13.4	15.0	11.8	13.2

요청하겠다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겠다	9.7	12.0	9.6	7.4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겠다	4.9	4.7	5.0	5.0
친구나 선배(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3.6	2.8	3.7	4.4

자료: 교육부2021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그 대응행동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29.9%가 목적을 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요령<표 5>에는 학교선생님이나 신고함에 알려졌다가 가장 높게 43.8% 나타나듯이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신고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3.4 교내에서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표 6> 학교폭력 피해장소 (다중응답, 건수기준) (%)

구분	학교 안 (55.3)							학교 밖 (40.6)					기타	
	교실 안	복도	운동장	화장실	특별실	기숙사	급식실/매점 등	놀이터	사이버공간	학원 주변	학교 밖 체험	집, 집 근처		PC방
전체	22.1	14.7	8.6	4.2	2.6	0.5	2.6	14.3	9.0	6.5	3.2	6.9	0.7	4.2
초	21.2	13.9	9.0	3.8	2.4	0.2	2.4	16.9	7.0	7.5	3.5	7.5	0.4	4.3
중	25.0	17.4	7.0	5.3	2.5	0.6	2.8	5.7	17.6	3.3	2.5	4.8	1.7	3.7
고	26.8	18.2	7.4	5.7	4.7	3.0	5.4	3.3	13.3	1.8	2.0	3.3	1.5	3.6

자료: 교육부2021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 7> 학교폭력 피해시간 (다중응답, 건수기준) (%)

구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학교 이후	수업 시간	학교 시간	학교 밖 체험	등교 시간	방과 후 수업	기타
전체	25.1	11.9	21.7	6.9	13.0	4.0	4.3	4.6	8.4
초	24.4	10.3	22.8	6.0	14.4	4.2	4.1	4.8	9.0
중	28.2	16.7	19.7	9.0	8.7	3.1	4.8	3.3	6.4
고	26.8	19.3	14.2	12.7	8.0	2.9	5.9	4.6	5.6

자료: 교육부2021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는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학교에서는 각종 폭력으로 인하여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 장소로 22.1%가 교실 안, 14.7%, 복도14.3% 놀이터이며,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25.1%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문제해결의지와 실행능력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3.3.5 가해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

<표 8> 가해이유 (다중응답, 건수기준) (%)

구분	전체	초	중	고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	20.5	22.6	12.5	10.7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35.7	35.7	37.3	30.2
오해와 갈등으로	10.5	8.9	16.9	17.9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8.4	7.5	11.1	14.2
다른 친구가 하나까	4.1	3.9	4.8	5.0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10.3	10.8	7.3	11.7
강해 보이려고	5.3	5.5	4.6	4.5
나의 보호자나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1.9	1.9	1.9	3.1
선배나 친구가 시켜서	3.3	3.2	3.6	2.8

자료: 교육부2021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을 행사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가해학생의 35.7%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했다고 응답하여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피해는 심각한 반면, 가해자는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가해학생 스스로가 가해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개인 특성은 물론이고, 그들이 처한 가정, 학교, 또래관계망,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에 통해 발현되는 복합적인 양상이다. 학교폭력은 국지적이거나 일시적인 대처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 학생들의 문제가 학교에서 예방되지 않으면 이후 더욱더 심각

하고 부적응적인 양상을 초래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비행이나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9].

#### 4.1 학교에서의 대처 방안

##### 4.1.1 건전한 학교문화 및 학교환경 조성

학교의 가장 중요한 조직 개념은 문화(culture)와 분위기(climate)이다.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는 학생들의 생존과 학습에 큰 영향을 준다[10] ‘학교의 문화’란 학교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존재하는 신념과 기대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 학생, 교사, 학교의 다른 직원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규범이나 신념을 포함한다.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인지하는 학교가 즐겁고 행복한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학교의 보호요인은 미비하고, 학교의 위협요인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학교문화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려면 학교문화와 학교분위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애착을 느끼면 느낀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1].

따라서 학교환경 중에서 특히 교사와 교우들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학교분위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폭력이 용인되지 못하는 학교문화와 비폭력적 학교분위기 조성으로 학생들이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오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본질이며, 동시에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가 학생들의 발전에 저해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학교구성원 모두의 역할인 것이다[12].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학교에서의 인성의 교육의 강화이다. 학교에서의 인간교육은 학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하며, 지식위주, 전학위주, 기술위주의 편협된 교육풍토 속에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퇴조되게 마련이고, 정서적으로 매마른 인간만을 길러 낼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인간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13]. 둘째, 학생자치활동의 강화이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 학교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14]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또래상담,

또래조정, 그리고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문제 해결에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해결책을 내어 놓고 있다[15] 또래간의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어른의 개입보다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개입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학생들 간의 소통중심의 또래상담[16] 활동은 학교폭력과 같은 부적응 부적응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로 간주되고 있다. 즉, 처벌위주의 대책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또래집단의 상호활동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를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함으로써 교우들 간의 사소한 갈등이 폭력의 수준으로 발전하기 전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조기개입으로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자율 및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 구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17]. 둘째,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밀도 있고, 긴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고충과 에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담임선생의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심층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 담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담임교사와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고 실시여부도 학교의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사의 수급을 확충하여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함으로써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 4.1.2 학교폭력에의 교사의 책임강화와 효율적인 대처능력

전문상담교사제도의 활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18].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생상담에 전념함으로써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인원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로 생긴 잉여 교원에게 상담을 부전공하도록 하여 상담에 필요한 인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을 활용할 예산이 부족하여 실제 배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여의치 않다면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폭력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부터 배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19].

#### 4.1.3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대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문제는 사이버폭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친구관계 갈등은 사이버 폭력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 대응체계 정비와 지역 단위 안전망을 구축한다.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사이버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하는데 이 청소년의 부정적 인터넷 사용이 사이버 폭력 문제로 연결되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지도감독과 학교교사 및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통해 사이버 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20].

#### 4.2 가정에서의 대처 방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1차적 교육기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높지만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 되면서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1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과잉간섭하거나 지나친 훈육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역기능이 초래되고 있다[21].

따라서 가정에서의 학대의 경험,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양육 관행, 가정결손이나 잦은 가정불화, 자녀들 앞에서의 심한 언쟁 및 폭력으로 심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부모의 모습, 알코올 중독, 기타 중독증세로 반사회적 성격을 도출하는 부모의 경우 등은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규범이나 기대가 일치하도록 학교폭력에 노출된 가해학생은 물론, 그 부모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22].

그리고 그 교육은 형식적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학교의 관련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하거나,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프로그램의 형식을 통해 자녀의 발달시기에 맞는 부모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23].

또한 가해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원만한 가족관계의 정립에 필요한 내용이나 공감훈련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선생님이 참여하는 화해모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24].

#### 4.3 지역사회의 대처 방안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와 경찰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그 해결이 어려우며, 대책의 수립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통해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그 관리감독이 지속될 때 효과를 달성 할 수 있다.

첫째, 경찰과 보호관찰관 Partner-Ship형성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은 사후적 대책의 하나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이 소년법에 의거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후 자신을 신고했던 학생들에 대해 2차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다른 비행을 행할 가능성에 대비한 교정교육의 일환이다. 즉, 범죄예방과 검거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과 소년사범이 범인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주 임무로 하는 보호관찰관이 공동하여 소년범 가운데 학교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정함으로써 경찰은 범죄의 사전예방효과를 거두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25]. 둘째,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심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한탕주의와 극단적 상업주의라는 사회병리현상으로 인해 학교주변에 까지 오락실이나 PC방, 유흥업소 등의 유해환경이 난립했다. 이러한 환경은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탈장소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무엇보다 업주들의 자성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물리적 유해환경을 정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심의단계에서부터 유해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26]. 셋째, 매스미디어의 각성이 요구된다. TV 등 매스미디어는 우리 국민생활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다. 그런데 우리의 매스미디어는 과도한 상업주의와 경쟁 지상주의로 인해 학교폭력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하거나 미화하는 등 무분별한 보도태도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모방범죄를 행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매스미디어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자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27]. 넷째,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의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 많이 요구된다.



다.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라는 가정환경의 변화와 학생들의 개성과 자율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의 변화는 학교에서의 0 교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의 폐지로 이어졌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는 학교 밖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반면, 우리사회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여유시간을 유해환경이나 인터넷 등에 빠져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자아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또한 IT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급격한 확산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영상물 등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이는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둔감하게 하고 모방행동을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바른 인터넷 등의 사용방법과 불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입법이나 법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28].

## 5. 결론 및 제언

교육부 202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신체폭력은 감소했으나 언어, 사이버폭력 및 학교밖 폭력 증가. 학교폭력의 다양화되고 복잡화 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저 연령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폭력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자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관단체 등 합동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과 선행적인 예방책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위해서는 첫째,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인 교사들의 의지와 실행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교사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수급을 확충하고 전문상담교사제도의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그동안 입시위주의 교육

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연수’로서 확대. 의무화하여 학교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둘째, 가정은 자녀의 1차적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곳이므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개입이 시행되어야 하며,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 및 공감대 형성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경쟁적, 이타적 사고 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존중받아야 하며, 청소년들의 일탈환경의 주범인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생활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TV 등 매스미디어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29].

넷째,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아개발에 필요한 건전한 놀이공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 확충하여야하며, 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상담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고민과 문제에 진정성 있게 임하고 이를 제대로 들어주고 수용해야 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0]. 또한 학교폭력피해의 예방대책은 가해학생의 처벌과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대처방안도 학생들의 주된 생활근거지인 학교환경의 개선과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제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학교폭력은 온,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하고 복합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뚜렷한 사이버 폭력 증가는 맞춤형 대응 추진[31]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실태조사와 사안처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인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박다애(2001),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P304
- [2] 이장현.우룡, “학교폭력의 연구동향에 대한고찰”. 『사회과학연구제5집』. (2010), P52
- [3] 이장현.우룡, “학교폭력의 연구동향에 대한고찰”. 『사회과학연구제5집』. (2010), pp57-58.
- [4] 교육부 보도자료(2022), p4.
- [5] 손충기.류재수(2013), 『학교폭력의 예방과대처』 태영출판사. pp14-21.
- [6] 김이영.송창백등(2016),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양성원, P18
- [7] 김이영.송창백등(2016),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양성원, PP19-21
- [8] 김정은. 최은혁(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P263.
- [9] David R. Dupper 저/ 한인영외3인 공역 『학교사회사업』, 학지사, p40.
- [10] Dupper, D, R & Mleyer-Admas(2002) N., Low-Level violence :A neglected aspect of school culture, Urban Education P37.  
David R. Dupper 저/ 한인영 외 3인 공역 『학교사회사업』, 학지사, pp350-364.
- [11] David R. Dupper 저/ 한인영 외 3인 공역 『학교사회사업』, 학지사, P171.
- [12] 문영희(2013),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2호, P15.
- [13] 여광응 외(1997), 『교사를 위한 교육심리학』 양성원, P190.
- [14] 문영희(2013),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2호, P16.
- [15] 문영희(1997), 『대안학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P23.
- [16] 한국청소년상담원(2012), 『또래상담자』.
- [17] 문영희(2013),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2호, P16.
- [18] 박윤기(2012) “학교폭력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4(2), 3-29
- [19] 김문호(2014) “학교폭력의 최근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권4호, P44.
- [20] 김정은. 최은혁(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P278.
- [21] 김문호(2014), “학교폭력의 최근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한국경찰학회보16권4호, P44.
- [22] 문영희(2013),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2호, P17.
- [23] 류영숙(201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9(4), PP615-636
- [24] 김창균.임계령(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교정복지연구, 28, PP 81-104
- [25] 김문호(2014), “학교폭력의 최근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권4호, P46.
- [26] 김문호(2014), “학교폭력의 최근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권4호, P45.
- [27] 김문호(2014), “학교폭력의 최근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권4호, P47.
- [28] 김문호(2014), “학교폭력의 최근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권4호, P45.
- [29] 김문호(2014), “학교폭력의 최근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권4호, P47.
- [30] 문영희(2013),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2호, P22
- [31] 교육부 보도자료(2022), pp3-4

**최 지원 (Choi, Ji Won)**



- 2020년 8월 : 심리상담센터 대표
- 2022년 8월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가족복지상담 수료예정
- 관심분야 : 다문화가정복지, 부부상담
- E-Mail : kimokran11@naver.com

**홍 상 욱 (Hong, Sang Uk)**



- 소속: 2021년 4월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교수
- 학력: 1990년 3월 일본 오오사카 시립대학 학술박사(생활복지학전공)
- 1983년 3월: 오오사카 시립대학 학술석사(생활복지학전공)
- 영남대학교 가정학사 (가정학전공)
- 관심분야: 가족코칭상담 및 복지, 부모교육
- E-Mail : sanguk@yumail.ac.kr